

김민애, 김윤하, 김희천, 박길종,  
백경호, 윤향로

이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O philoi, oudeis philos

Kim Minae, Kim Yunha,  
Kim Heecheon, Park Kiljong,  
Baek Kyungho, Yoon Hyangro

ATELIER  
HERMÈS  
H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O philoi, oudeis philos  
Installation view

#### List of works

**김민애 Kim Minae** 파사드 Façade  
2017, PVC tent, steel frame, lightings, adhesive sheets, Dimension variable

**김윤하 Kim Yunha** 그 우발에 대한, 방지하고 싶은 그 불편에 대한, 그럼에도 의도할 수 없는 그 오염된 수단에 대한, 그 전생을 수행하려고 증식하다가, 경계를 발견하고는 On the accidental, on the uncomfortable that inclined to leave alone, howbeit on the corrupt means that is unable to be intended, while propagating to perform the former life, then finding out the boundary  
2017,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김희천 Kim Heecheon** 멀블 Mumbling in Hell, Tumbling down the Well  
2017, Single-channel video, HD, 24 minutes

**썬킷 Circuit**  
2017, Inkjet print, 160 × 120 cm, 160 × 120 cm, 120 × 90 cm, 90 × 60 cm

**박길종 Park Kiljong** 내 친구의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다 Les amis de mes amis sont mes amis  
2017, Acrylic, Styrofoam, sponge, gold foam, MDF, paper, EVA, mirror; two round-shaped plates that my friend Kim Jae-hwan commissioned to a carpenter's shop but not used (MDF, lauan plate, general plywood, core plywood), Mona Lisa toilet paper, stainless steel, metal, mirror, acrylic, felt, a flashlight covered with felt by my friend Kim Yunha; Styrofoam, acrylic, brick, A4 paper, Gold Star cassette player, a remake of Byul.org's song by permission; air cap, acrylic; wand, acrylic; motors, egg models, deer horn models, bird models, wood, stainless steel, metal, Styrofoam, handy coat; acrylic, mirror, metal, Styrofoam, felt, tape, blend; egg pattern, circular fluorescent lamp, flat fluorescent lamp; wire, switch, shrink tube, Dimension variable

**백경호 Baek Kyungho** 꼬마 Kid  
2017, Oil, iso pink, glue, nail, oil tube, carton, shirt, cold wax, putty on linen, 260 × 205 cm, 87 cm (O)

할머니 Grand Mother  
2017, Oil, shirt, nail on canvas, 162.2 × 130.3 cm, 55 cm (O)

꽃무덤 Floral Grave  
2017, Oil, shirt, putty on linen, 260 × 205 cm, 85 cm (O)

사원 Temple  
2017, Oil, painting knife on canvas, 162.2 × 130.3 cm, 55 cm (O)

자화상 Self Portrait  
2017, Oil, linen, putty, cold wax, tissue on canvas, 260 × 205 cm, 87 cm (O)

**윤향로 Yoon Hyangro** 스크린샷 3.02.23-4 Screenshot 3.02.23-4  
2017, Acrylic on canvas, 80.3 × 116.8 cm

스크린샷 3.02.23-2 Screenshot 3.02.23-2  
2017, Acrylic on canvas, 80.3 × 116.8 cm

스크린샷 3.02.23-3 Screenshot 3.02.23-3  
2017, Acrylic on canvas, 80.3 × 116.8 cm

스크린샷 3.02.23-1 Screenshot 3.02.23-1  
2017, Acrylic on canvas, 80.3 × 116.8 cm

스크린샷 3.02.23 Screenshot 3.02.23  
2017, BCF nylon, polypropylene, polyester, 200 × 450 cm

## 인사말

그동안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초청 작가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작업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장기간 열정적이고도 신중하게 일하면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에르메스 회장이었던 장-루이 뒤마의 아이디어로 제정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한국 현대미술계가 보여주었던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풍부했던 조짐들은 특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에르메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젊은 작가들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제정하여 젊은 창작자들을 직접 지원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의 개관과 더불어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 붙여진 ‘아틀리에’라는 명칭은 장인의 작업 공간과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동시에 지칭하는 불어 단어로, 특히 예술 창작의 분야와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의 전통을 잇는 강한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프랑스 작가 다니엘 뷔렌은 개관 전시를 구상해 달라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크나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많은 전시가 개최되었고 매 전시마다 초청된 작가들은 독자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선보였습니다.

자연히,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또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들의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에는 변화가 있었고, 최종 수상자—제16회 수상자 정금형의 경우—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의 전시를 앞두고 파리에서 4개월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간 큐레이터 김성원, 박만우, 백지숙 그리고 김윤경이 차례차례로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를 함께 혹은 번갈아 초청하면서 세대간 관계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높이 평가되었고, 타 문화에 대해 한결같이 열려 있는 정신을 표방하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국제적인 위상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전시는 그렇게 작가에게도, 관람객에게도 아주 새로운,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그들의 요구에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열망했던 에르메스가 수호해온 가치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는 작가들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깊이 있고 예민하게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귀기울이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공유하고자 할 때에만 작가를 구축할 뿐입니다.

— 까뜨린느 츠키니스, 에르메스 재단 디렉터

## Foreword

The reputation that Atelier Hermès has gained over the years is the fruitful result of passionate and thoughtful work animated by our teams on a long-term basis, dedicated to accommodating guest artists and enhancing their artworks. It all began at the beginning of the 2000s with the creation of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former “Hermès Korea Missulsang”), under the impetus from Jean-Louis Dumas, the then-CEO of Hermès. At the time, the signs of a new emerging scene of Korean contemporary art, as abundant as it was innovative and dynamic, were particularly remarkable. Hermès wanted to accompany this emerging movement and support the young creators directly by initiating a prize that would well reveal their talents.

It was on such grounds of this first initiative that an exhibition space was created as soon as the doors of Maison Hermès Dosan Park were open. The name “Atelier”—a French word that designates both the workspace of the craftsman and that of the artist—given to this space is particularly indicative of the strong link that unites the domain of creation and the artisanal tradition of Hermè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French artist Daniel Buren has placed Atelier Hermès under the best auspices by designing the inaugural exhibition. Since then, numerous exhibitions have followed, each emphasizing the unique expression of one or more artists invited to create new works.

Naturally, Atelier Hermès was also the setting for the projects of the Missulsang winners. This prize recently evolved to allow the winner—Jeong Geumhyung for the 16th edition—to benefit from a four-month residency in Paris, before the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Kim Sung Won, Park Manu, Beck Jee-sook and Kim Yunkyoung are the curators who have successively curated the exhibitions of Atelier Hermès during the past eleven years. Their program mixes or alternates emerging artists and established ones, foster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s much as the Korean artists are honore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Atelier Hermès is also important, in a constantly open spirit toward different cultures. Each exhibition must therefore be an unprecedented and enriching adventure for the artists as well as the visitors.

Enabling artists to realize new projects consists of a very concrete response to their needs. Essentially, this support fully corresponds to the values firmly held by Hermès, that has always been committed to valorizing the human capacity to transform the matter.

Today more than ever, our ambition is to accompany artists and remain attentive to what they reveal to us of the state of the world, with depth and sensibility. Our sole constraints are that we are demanding and we love to share.

— Catherine Tsekenis,  
Director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김민애 Kim Minae 파사드 Façade

# 이미 존재했던,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에 관하여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멀리 어른거리는 빛을 길잡이 삼아 나아가다 보면, 어둡고,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는 가로막히기도, 때로는 다시 제자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통로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의미의 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의 흐름은 미로처럼 제시된 통로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 수수께끼처럼 제시된 시공간을 벗어나면 탁 트인 빛의 공간이 마침내 펼쳐진다. 환하고, 넓고, 시선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시장. 안락한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에 안도하는 순간, 그러나, 이곳 역시 방금 통과한 미로와 다르지 않은 개념적 미로임을 깨닫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듯 혹은 은폐하듯, 서로를 배경 삼아 때론 서로를 의지 삼아 배치되어 있는 서로 다른 작업들은, 당연하게도, 하나의 전시를 구성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가 했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인용구,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를 제목으로 가져온 이 전시는 여섯 명의 작가—김민애, 김윤하, 김희천, 박길중, 백경호, 윤향로—가 마치 ‘친구’를 부르듯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sup>1</sup>를 현재로 불러내어, 그 과거의 궤적을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자신들 ‘각자의 현재’<sup>2</sup>와 대면시키고, 이것을 다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서로의 미래’<sup>3</sup>라는 또 다른 ‘친구’에 투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전시는 김민애가 제안하는 ‘경험의 공간’으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시장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전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로 기능하는 임시 벽면을 대체하는 김민애의 설치작업 파사드(2017)는 텍스트로 변환된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를 재료로 삼아 시공간적으로 유기적인 확장을 꾀한다. 지난 10년간의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보도자료, 도록, 리뷰 등—으로부터 추출해낸 키워드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미로와도 같은 이 공간은 벽이면서 통로이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거’(기록)의 파편들이 부유하지만 ‘미래’(새로운 작업이 전시되는 공간)로 관람객을 안내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현재’(작가 자신)를 통해 걸려진 ‘과거’(텍스트)가 떠도는 김민애의 시공간에 화답하듯 그 우발에 대한, 방치하고 싶은 그 불편에 대한, 그럼에도 의도할 수 없는 그 오염된 수단에 대한, 그 전생을 수행하려고 증식하다가, 경계를 발견하고는(2017)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제목을 내세운 김윤하는 ‘과거’에 보다 직관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로부터 김윤하는 직관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을 포착해내고, 그 각각의 키워드를 자신에게 익숙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재해석하고 형태를 부여한다. 일상적인 사물들을 이리저리 조합해낸 김윤하의 작업은 작가의 언급대로 ‘예쁜 쓰레기’와 ‘명예로운 기념품’ 사이 그 어디쯤을 맴도는 예술의 지위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하다.

김윤하와 함께 작가 콜렉티브 길종상가로 활동 중인 박길중에게 물리적인 재료는 어쩌면 ‘과거’를 호명하는 가장 유의미한 도구일지 모르겠다. 전시장 곳곳에 놓인 박길중의 작업 내 친구의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다

1.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라는 표현은 2006년 11월 개관 이래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기획했던 전시들과 그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 그리고 그들이 선보였던 작업들 모두를 포괄해서 지칭하기 위한 편의상의 선택이다.  
2.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자신들 ‘각자의 현재’는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개인의 상황이나 조건뿐 아니라 2017년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을 포괄하는 인식 가능한 세계 전체를 지칭한다.  
3.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서로의 미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될 작업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일 작업들을 지칭한다. 모든 작업은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되었으므로, 각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과 함께 전시될 동료 작가들의 작업을 보지 못한 상태로 제작에 임했고, 그래서 전시 준비 기간 내내 각 작가들에게 동료의 작업은 여전히 ‘어떤 가능성’으로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도 같았다.

# On the Possibilities that Have Already Existed, but Not Yet Arrived

The path towards the gallery is a bit challenging. Once moving forward guided by a dim light afar, the dark, narrow and meandering path is sometimes blocked or connected to the original spot. A flow of texts whose meanings are unfathomable is endlessly ongoing towards a passage, which amplifies audience’s anxiety experienced in the labyrinth-like passage. A wide open space of light unfolds at last after coming out of the enigmatic tempo-spatial zone—a gallery where everything is seen at a glimpse without any obstacles. The moment audience is relieved for having made a successful entry into a cozy space, they realize that it is again a conceptual labyrinth which is nothing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assage.

Heterogeneous works that are arranged, having one another as backgrounds or supporting works, as if to complement or conceal each other, form, of course, a single exhibition. The title of the exhibition, *O philoi, oudeis philos*, is from a quote attributed to Aristotle (BC 384–322) by tradition. The six participating artists—Kim Minae, Kim Yunha, Kim Heecheon, Park Kiljong, Baek Kyungho and Yoon Hyangro—would bring in the “past of Atelier Hermès”<sup>1</sup> as if they would call their “friends,” let the trajectory of Atelier Hermès’s past confront with “each of their present,”<sup>2</sup> and then reflect this again into the “future of each other”<sup>3</sup> which is not realized—a “friend” to come.

The exhibition begins with an “experimental space” proposed by Kim Minae. *Façade* (2017), an installation work of Kim Minae, substitutes a temporary wall which serves to herald the start of the exhibition while separating the gallery and other space and notifying information on the exhibition, and seeks for a tempo-spatial organic expansion with the “past of Atelier Hermès” converted into texts as a material. The space like a labyrinth with an endless flow of keywords extracted from various records—press materials, catalogues and reviews, etc.—on the exhibitions of the past decade is a wall, yet a passage, arousing anxiety, yet curiosity, and has fragments of the “past” (records), yet guiding audience to the “future” (a space where new works are to be exhibited), thus existing as possibilities yet to come.

As if to respond to the tempo-spatial zone of Kim Minae where the “past” (texts) filtered through the “present” (the artist herself) is floating around, Kim Yunha who titled an enigmatic title, *On the accidental, on the uncomfortable that inclined to leave alone, howbeit on the corrupt means that is unable to be intended, while propagating to perform the former life, then finding out the boundary* (2017) opts for a way of intuitively responding to the “past.” Kim Yunha grasps keywords intuitively from the “past of Atelier Hermès,” uses familiar materials for reinterpretation and imposes relevant forms. Works of Kim Yunha who has combined daily objects in different ways can be referred to as her comment on the artistic positioning posited somewhere between “pretty garbage” and “honorable souvenirs.”

For Park Kiljong who is working as Kiljong Arcade with Kim Yunha, a physical material might be the most significant instrument to summon the “past.” *Les amis de mes amis sont mes amis*

1. The expression of the “past of Atelier Hermès” was chosen out of convenience to comprehensively refer to the exhibitions at Atelier Hermès since its opening in 2006,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their works.  
2. The “each of the present” of participating artists refers to the perceivable universe covering the tempo-spatial zone of 2017, here and now, as well as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individual artists.  
3. The “future of each other” which is not realized yet refers to works to be created anew for this exhibition and works to be introduced here for the first time. All works are newly created for the exhibition, so each artist participated in their work without having seen the works of other participating artists, so works of the peers were analogous to the future which can be predicted only with “some possibilities” throughout the entire journey of preparation.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 0 philoi, oudeis philos  
Installation view

(2017)는 지난 10년간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렸던 전시에서 작가들이 각자의 미술을 구현해온 방식, 특히 재료의 측면에 대한 재해석을 보여준다.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미술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미술은 새롭게 등장하고 발견된 재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박길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재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술에 적용했던 ‘과거’의 작가들을 참조하여 그들이 활용했던 재료와 그것을 다루는 기법을 다시 ‘현재’의 형태로 번역해낸다.

박길종이 동일한 재료의 재맥락화를 시도한다면, 윤향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이한 경험 방식이 촉발시킨 인식의 변화를 물리적인 재료와 크기, 위치를 번역하는 시도에 투영해낸다. 오늘날 정보의 습득과 경험은 상당 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윤향로는 이 일반화된 방식을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지난 10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적용하고, 이 비물질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촉각적이고 직접적인 실제로 변환시켜 물리적인 현실로 불러내는 과정을 자신의 ‘유사회화’라는 개념을 빌어 고민한다. 현실을 재현한 회화를 디지털 이미지로 경험하고, 이것을 다시 아날로그 이미지로 해상도를 높여 물리적인 실제로 도출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미지가 적용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윤향로와 더불어 가장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를 통해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지난 10년을 소환하는 배경화가 보여주는 대조적인 결과물 역시 흥미롭다. 배경화는 결코 분명하게 구분되고 규정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미술의 목소리와 욕망들을 하나의 화면 위로 끌어들이며 모순과 충돌이 가득한 불확실과 불안의 장으로 제안한다. 회화의 역사를 망라하는 서로 다른 붓질과 질감, 재료와 표현이 혼재하거나 공존하는 거대한 그의 화면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실험과 창작 열정의 궤적이 응축된 기념비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를 불러내어 자신들 ‘각자의 현재’와 대면시킴으로써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다면, 김희천은 VR,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해 재편된 공간간의 조건을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와 대면시키는 방식 자체에 접목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어림잡아 사람의 7년에 해당하는 1년의 시간을 경험하는 ‘개’와 좁은 공간에서도 광대한 단전을 경험할 수 있는 ‘VR 게임’은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의 3층에 위치했던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지난 10년을 지금 여기로 소환해내는 과정에 대한 영리한 비유이다. 실제 공간과 3D 그래픽으로 재현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맵핑된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맹인 안내견의 시공간 체험을 통해, 김희천은 지난 10년간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그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에 미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질문한다.

어둡고 좁고 구불구불한 물리적 미로를 통과해 도달한 환하고 넓은 전시장에 펼쳐진 개념적 미로는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게임을 제안한다. 전시 제목에 등장하는 ‘친구’라는 용어가 갖는 독특하고 불편한 의미론적 지위는 이 게임을 풀어나가는 데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누군가를 친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친구라는 것은 어떤 주체의 속성이나 성질이 될 수 없고, 누군가를 친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친구임을 자각하는 일이 된다. 조르조 아감벤(b.1942)의 말을 빌리면, 친구는 “자기 자신 속에 내재하는 타자성”이며 “자기 자신의 타자 되기”이다. ‘친구’를 부르듯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전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렇듯, 친구들을 호명하며 우정의 시작을 이끌어내는 듯하다가 곧바로 친구는 없다며 우정을 부정하는 인용구 ‘오 친구들이여, 친구는 없구나’는 친구의 존재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우정의 이중성을 적시한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양립하는 이 매력적인 지점에서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지난 10년은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의 방향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호명된다. 10년 전, 아틀리에 에르메스가 제안했던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은, 이렇듯, 지금 이곳을 실험과 창작의 역동적인 공간으로 여전히 기능하게 하는 오늘의 작가들이

4. 조르조 아감벤, “친구”,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49–67.

(2017), Park Kiljong’s work placed in different spots in the gallery, shows reinterpretation on the modality of art implemented by artists in the exhibitions held at Atelier Hermès for the past decade and reinterpretation of the material aspect. Changes of the times brought about new types of art, which proactively adopted newly emerging and discovered materials. Park Kiljong translates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by the artists of the “past” in the “present” form based on their works where changing materials depending on the times were applied to their art in various ways.

While Park Kiljong attempted to re-contextualize the same materials, Yoon Hyangro reflected perceptual changes induced by heterogeneous ways of experiencing the same objects into the attempts to translate physical materials, size and position. Acquiring and experiencing information in today’s world mostly take place via the Internet, Yoon Hyangro has applied such a standardized modality to that of acquiring and experiencing information on the past decade of Atelier Hermès, and mulls over the process of converting such an immaterial and indirect experience into a tactile and direct substance and summoning it into a physical reality based on the concept of “psuedo-painting” of hers. It is significant that an energy-bursting image has been applied to a course of experiencing paintings as representation of the reality in digital images, and bringing them into a physical substance by increasing the resolution through analogue images.

Intriguing are the contrasting works of Baek Kyungho, who has contemplated on the past decade of Atelier Hermès via paintings—the most traditional medium—along with Yoon Hyangro. Baek Kyungho brings different voices and desires of art which cannot be clearly distinguished or defined onto a single canvas and suggests them as a field of uncertainties and anxiety replete with ironies and conflicts. His large-scale canvas for combinations or coexistence of different brushstrokes, textures, matieres and manners transcending the history of paintings is a monument where the trajectory of passion for diverse experiments and creation are condensed, which have taken place at Atelier Hermès.

While most of the artists discovered some outcome by confronting “each of their present” with the “past of Atelier Hermès,” Kim Heecheon attempted to attach the tempo-spatial conditions realigned by such digital devices as VR, Internet and smart phones to a modality of confront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A “dog” which experiences a period of one year which equals roughly seven years for a human and a “VR game” where audience can experience a broad dungeon in a narrow space are clever analogies for a process of summoning the past decade of Atelier Hermès which used to be located on the third floor of Maison Hermès Dosan Park. Through the tempo-spatial experience of a guide dog for the blind which transcends an actual space, a space represented in 3D graphics and a virtual space mapped within the space, Kim Heecheon raises a question on rapid changes in the times for the past decade and what it means to be used to it, and how art reacted to such changes.

A conceptual labyrinth unfolding in a bright and broad gallery reached through a dark, narrow and meandering physical one suggests a confusing, yet interesting game. The peculiar semantic status of the term “friend” in the exhibition title provides a useful concept in solving the game. To recognize someone as a friend means not being able to recognize him as a something. In other words, friendship can neither be a property nor a quality of a subject. To recognize someone as a friend is to recognize that I and that person are friends. According to Giorgio Agamben (b.1942), a friend is “an otherness immanent to selfness,” and “a becoming other of the self.”<sup>4</sup> The assumption of bringing in the “past of Atelier Hermès” into the present, as if to invoke a “friend,” begins here.

As such, “O philoi, oudeis philos,” a quote which negates friendship with the very same gesture by which it seems to invoke it, indicates the double-sidedness of friendship while revealing

4. Giorgio Agamben, “The Friend,”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25–37.



김윤하 Kim Yunha 그 우발에 대한, 방치하고 싶은 그 불편에 대한, 그럼에도 의도할 수 없는 그 오염된 수단에 대한, 그 전생을 수행하려고 증식하다가, 경계를 발견하고는 On the accidental, on the uncomfortable that inclined to leave alone, howbeit on the corrupt means that is unable to be intended, while propagating to perform the former life, then finding out the boundary



김희천 Kim Heecheon 씨킷 Circuit  
박길종 Park Kiljong 내 친구의 친구들은 내 친구들이다 Les amis de mes amis sont mes amis

지난 10년을 마주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김민애의 인용문을 다시 인  
용하자면—이미 “눈앞에 다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 김윤경

the possibility and the non-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friend. The past decade of Atelier Hermès is referred to not as a retro-spective modality but a prospective one on the directions of the upcoming time at this attractive juncture where possibilities and non-possibilities coexist.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suggested by Atelier Hermès ten years ago, as such, is revealed as another possibility for the next decade via various modalities to confront the past decade by artists of today, enabling this place as a dynamic space of experiments and creation. And it might be the case that it already “is right ahead”—to quote the words of Kim Minae again.

— Kim Yunkyoung



윤향로 Yoon Hyangro 스크린샷 3.02.23-4 Screenshot 3.02.23-4, 스크린샷 3.02.23-2 Screenshot 3.02.23-2, 스크린샷 3.02.23-3 Screenshot 3.02.23-3, 스크린샷 3.02.23-1 Screenshot 3.02.23-1



Atelier Hermès 2006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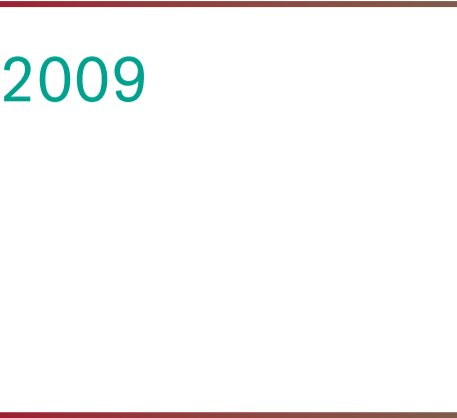
2006

다니엘 뷰렌 / Filtres colorés: travail in situ  
Daniel Buren / Filtres colorés: travail in situ  
2006.11.9 – 2007.1.7



2007

2006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김상길, 배영환, 임민욱  
2006 Hermès Korea Missulsang:  
Kim Sang-gil, Bae Young Whan,  
Lim Minouk  
2007.1.20 –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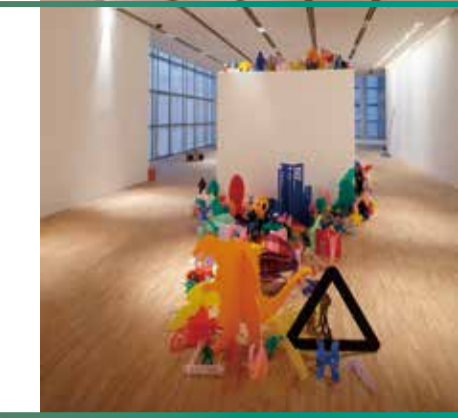


2009

2008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김신일, 송상희, 함양아  
2008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Shin-il Kim, Sanghee Song,  
Yang Ah Ham  
2008.8.30 – 11.9



로랑스 데르보  
Laurence Dervaux  
2009.1.10 – 3.1



박미나 & 잭슨홍 /라마라마딩동  
Meena Park & Jackson Hong / Rama  
Lama Ding Dong  
2009.3.21 – 5.12



정서영 / 책상 윗면에는 머리가 작은  
일반못을 사용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사못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Chung Seoyoung / On top of the table,  
please use ordinary nails with small  
head. Do not use screws.  
2007.3.29 – 5.22



비디야 가스탈돈  
Vidya Gastaldon  
2007.6.5 – 8.5



2007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김성환, 이주요, Sasa[44]  
2007 Hermès Korea Missulsang: Sung  
Hwan Kim, Jewyo Rhii, Sasa[44]  
2007.8.25 – 10.23



마틴 보이스 / 정지된 호흡  
Martin Boyce / Suspended Breath  
2007.11.8 – 2008.1.6



짐 램비 / Nervous Track  
Jim Lambie / Nervous Track  
2009.5.28 – 8.9



2009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남화연, 노재운, 박윤영  
2009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Hwayeon Nam, Jae Oon Rho,  
Yoon Young Park  
2009.9.4 – 11.15



2010



김수자 / 지수화풍  
Kimsooja / Earth-Water-Fire-Air  
2010.1.9 – 3.28



2008



구동희 / 합성적 체험  
Donghee Koo / Synthetic Experience  
2008.1.23 – 3.16



게리 웹 / Export  
Gary Webb / Export  
2008.3.28 – 5.25



박찬경 / 신도안  
Park Chan-kyong / Sindoan  
2008.6.21 – 8.17



베르트랑 라비에 / Phantoms  
Bertrand Lavier / Phantoms  
2010.4.22 – 6.27



2010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박진아, 배종현, 양아치  
2010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Jina Park, Jong Heon Bae, Yangachi  
2010.7.23 – 9.19



김소라  
Sora Kim  
2010.10.2 – 12.5



2011



아이작 줄리언 / Ten Thousand Waves  
Isaac Julien / Ten Thousand Waves  
2011.4.29 – 7.17



2011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김상돈, 최원준, 파르타임스위트  
2011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Sangdon Kim, Onejoon Che,  
Part-time Suite  
2011.8.9 – 10.4



노재운 / 목련아 목련아  
Rho Jae Oon / Mulian Mulian  
2011.10.28 – 12.13

## 2012



박진영 / 사진의 길  
Area Park / Way of Photography  
2012.1.6 – 3.13



홍승혜 / 광장사각 廣場四角  
Hong Seung-hye / Square Square  
2012.4.5 – 6.12



2012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구동희, 이미경, 잭슨홍  
2012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Donghee Koo, Mikyung Lee,  
Jackson Hong  
2012.7.27 – 9.25



나타샤 니직 & 박찬경 / K.W. Complex  
Natacha Nisic & Park Chan-kyong /  
K.W. Complex  
2012.10.26 – 12.18

## 2013



김영일 / 귀한 사람들  
Young-il Kim / Precious People  
2013.1.11 – 3.19



크리스 마커, 강홍구, 노재운, 정윤석,  
황세준 / 크리스 마커와 코레안들  
Chris Marker, Kang Hong-goo,  
Rho Jae Oon, Jung Yoonsuk,  
Hwang Sejun / Chris Marker and  
Coréennes  
2013.4.5 – 6.11



2013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나현, 노순택, 정은영  
2013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Na Hyun, Noh Sun-tag,  
Siren Eun Young Jung  
2013.7.26 – 9.29



nnncl & 믹스라이스  
nnncl & mixrice  
2013.10.12 – 12.17

## 2014



컨덴세이션 / 올리버 비어, 시몬 부드뱅,  
가브리엘레 키아리, 엘리자베스S. 클라크,  
마린느 클라스, 마르코스 아빌라 포레로,  
마리-안느 프랑크빌, 세바스티앙 그슈윈드,  
야츠노부 코히라, 오유경, 브누와 피에롱,  
펠릭스 핑키에, 에밀리 피투아제,  
안드레스 라미레즈, 올리비에 세베르,  
안느-샤를로트 이베르  
Condensation / Oliver Beer, Simon

Boudvin, Gabriele Chiari, Elisabeth  
S. Clark, Marine Class, Marcos Avila  
Forero, Marie-Anne Franqueville,  
Sébastien Gschwind, Atsunobu Kohira,  
Oh You Kyeong, Benoît Piéron, Félix  
Pinquier, Émilie Pitoiset, Andrés  
Ramírez, Olivier Sévère, Anne-  
Charlotte Yver  
2014.10.2 – 11.30



2014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슬기와 민, 여다함, 장민승  
2014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Sulki & Min, Yeo Daham,  
Jang Minseung  
2014.12.19 – 2015.2.15

## 2015



김윤호 / m<sup>2</sup>  
Kim Yunho / m<sup>2</sup>  
2015.4.4 – 5.31



p. 2 / 장미로 엮은 이 왕관  
p. 2 / This Rose-garland Crown  
2015.6.25 – 8.23

## 2016



이수경 / 믿음의 번식  
Yeesookyung / Saint Breeders  
2015.9.18 – 12.20



사단 아피프 / 무엇을? – 영원율.  
Saādane Afif / Quoi? – L'Eternité.  
2016.5.10 – 7.10



제16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정금형 / 개인소장품  
The 16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Jeong Geumhyung /  
Private Collection  
2016. 8. 26 – 10. 23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 프로그램, 현대 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미지전” 프로그램, 디자인의 “에밀 에르메스 프라이즈”,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토-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men and women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for photography, the *Prix Émile Hermès* for design, *Manufacto –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 is the Fo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z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연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About the Next

2010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였던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 펼쳐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The Continental Drift Club, 5G, Insomnia, 서울, 최면, 사랑을 위한 무대로 제안될 예정입니다.

Yangachi, the winner of 2010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s coming back to Atelier Hermès with his new project. His project will be presented as a stage for the Continental Drift Club, 5G, insomnia, Seoul, hypnosis and love.

